

교회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각 선교지 선교사님들께

할렐루야

현재 저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안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덮어 주시길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선교지만이 아니라 본 교회와 전세계 모든 국가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적 내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몸된 교회, 그리고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헤쳐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다 함께 기도와 준비로 이번 시기를 헤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A국 김00

1. 한빛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영혼 구원을 위해 1 분 기도.
2. 한국어 취업 eps 출신 청년 들이 하나님 만남 있기를.
3. 코로나바이러스 19으로 무너진 질서가 빠르게 정상 회복 되기를.

A국 이00

1.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2. 시작되는 기독교 학교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변질하지 않고 예수님 제자들을 배출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3. 이 사역을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도록.
4. 제 항암 시간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도록.
5. 사랑하는 자녀 쇼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딸이 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갈수 있도록.
6. 법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재산의 용도 변경과 매매가 불가능 하도록.
7. 저는 지난 3주정도 영치병증 왼쪽 엉덩이 마비증상으로 힘든 중 한국은 갈수 없고 네팔 병원에서 CT등의 검사를 통해 엉덩이를 중심으로 암세포들이 전이되어 통증을 완화 할수가 없어서 내일부터 항암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최고로 잘 해주실 것을 믿기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국 강00 이00

1. 귀한 5기 학생들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2. 5월10일 주일 히마찰에 3명 유포주에 1명이 각 주의 허가서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 갔고,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지역도 안전하지 않아서 조속히 모든 학생들과 스텝들이 아무 탈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귀향을 위해.
3. 인도에 공장도 안 돌아가고, 차도 다니지 않으니까 상쾌한 공기도 즐겼습니다. 남아 있어준 학생들 덕분에 훈련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가서 약을 타야 하고, 건강 체크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성령충만과 건강을 위해, 또 하늘 길이 열려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3. 모든 동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O국 고00 00

1. 발이 묶여 찾아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꿈과 환상 계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하소서.
2. 사역자들의 가정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3. 주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통해 이 땅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4. 이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선교 전략과 방법의 지혜와 믿음을 주소서.
5. M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 되신 예수그리스도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신 주 되시기를.
- 6.말씀을 받았던 이들이 그들의 종교적 전통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받은 말씀을 잘 지켜 낼 수 있도록.

은혜한인교회

2020년 5월 31일

선교사 현황

58개국 344명

자체파송 71%

선교소식

은혜한인교회 비전을 위한 기도제목

1. 이방인의 총만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 (롬11:25 ~28)을 위한 총체적 선교를 위해
2. 온전한 성결, 전적인 헌신으로 순교적 선교 감당
3. 미전도 종족 지역 7,000개 센터 교회 세움 위해
4. 제자화, 교회개혁, 토착화를 위해
5. 선교사 훈련원 & 신학교(19)를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K국, J국(3), 대만, O국, I국, 캄보디아, T국, 케냐,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김광신 원로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건강 회복과 새 힘 주심
2. 성령충만, 권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한기홍 담임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100일 특새 말씀을 위해
2. 성령충만, 능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3. 영육간의 강건, 이 시대 영적 리더로서 사명 감당
4. 교계와 선교계를 잘 섬기는 사명 감당

선교사 방문현황

- 주경자
- 장성렬
- 강숙진 (키르기스스탄)
- 정소남, 미선 (러시아)
- 김봉년, 김미란 (체랴빈스크)
- 한성우 (이르쿠츠크)
- 최정진 (알타이)
- 구스타보 안희진 (쿠바)

나눔 사랑의 손길

-베네수엘라 김도현, 강미애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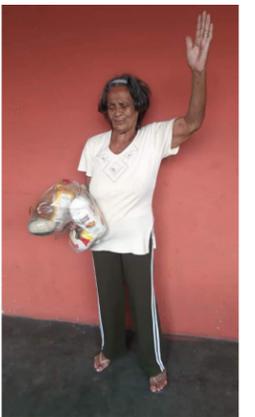
지난주 중남미 최대 빈민가로 알려진

베네수엘라 petare 지역의 빈민가 어려운 가정들과 어린이 급식사역에 오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10가지의 음식을 사서 1봉투에 넣어 100개의 음식봉투를 만들어 전달하였습니다.

네 곳 교회의 현지 목사님들을 통해 음식봉투가 100가정에 전달되었습니다.



<주님께 사랑.... 100개의 기적>



요즘 3개월의 자가격리 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굶주림으로 힘든 빈민가에 지난 2주동안 빈민가 갯단의 총싸움에 아무도 빈민가에 들어갈수 없도록 막아놓았습니다.

또 2달간 물한방울 안나오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요즘 휘발유 수급의 문제로 전국에 휘발유가 없고 암시장에서는 1리터에 약 3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 Amazon.com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com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n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나눔 속의 선교지

-과테말라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

종이신 하나님

살롱!!
과테말라 최용준/재숙 선교사입니다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테말라도 10주째 지역간의 단절과 시간적인 통금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리에는 백기를 들고 도움을 구하는 아기 어머니나 젊은 청년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 안타까움에 기도를 합니다. 마침내 도움의 손길이 생겨서 지난주에 물건을 사서 모으고, 오늘에야 가까운 교인들 가정과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사은 물품을 나누어서>



<차를 타고 사랑을 나누며>



조만간 지역간의 통행이 풀리면 시골 지역 현지인 교회를 방문해 도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친 영혼에게 복음과 사랑을...

-N국 남00, 남00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삶의 전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때 보다도 더욱 간절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인도는 지난 1월 30일에 중국인 유학생으로 부터 시작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 22일 모오 총리의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선제적으로 N국 전체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로 5월 초까지 전국적인 확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지난 5월 초부터 제한적인 통행해제 조치로 인도 서부의 공업지대와 대도시에서 살고 있던 학생, 노동자들이 인도 동부 지역의 자신들의 고향으로 기차, 트럭 그리고 맨발로 걸어서 천킬로미터에서 많게는 이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확진자의 숫자도 엄청나게 빠른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비00주는 5월초에 500여명의 확진자가 있었으나 5월 26일 현재 2968명이 되어 4주동안 6배로 증가하였습니다. N국 전체적으로는 현재 1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N국전체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 40%이상의 사람들이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확진자 중에서 2.8%의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되어 사망을 하였습니다. 열악한 인도의 의료시스템 가운데서 이러한 수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속히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도록 기도 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자신들의 마을로, 가족으로 돌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의료나 행정 시스템의 부족으로 마을 밖 망고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청년은 1700km를 걸어서 어렵게 고향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다시 격리 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어머니가 준비한 밥 한끼도 먹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마을 어귀의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자신들의 마을로, 가족으로 돌아 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의료나 행정 시스템의 부족으로 마을 밖 망고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청년은 1700km를 걸어서 어렵게 고향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다시 격리 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어머니가 준비한 밥 한끼도 먹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마을 어귀의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의 교회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노동자들에게 작은 도시락을 만들어 고속도로에서 전도지와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준비한 도시락은 먼길을 달려 온 그들의 주린 배를 잠시 동안 부르게 할 수 있지만 함께 나누어 주는 전도자에 적합한 말씀은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과 함께 교회의 성도님들이 바이러브의 위험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팀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분들의 안전과 고향으로 돌아오는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말씀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속히 이 모든 환란이 끝이 나고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도로에서 물과 도시락을 나누어 주며>



A국 선교 소식

-A국 김00 선교사-

할렐루야!

좋은날 A국 사역지 소식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으로 모두가 얼어 붙어, 봄이 와도 조심 또 조심하는 상황입니다 만 A국 핫띠슈레 한빛 학교 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휴교 동안에 현지인 사역자 선저애 며혈전 선생님은 마을 청년들 그리고 친인척과 함께 밤 늦게까지 학교 증축과 단장으로 새로 등록할 어린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 19 으로 조기 방학 전에 교장 썰씨띠 라마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들의 수고로 기말 시험을 치렀고, 운전자 선저애 며혈전이 인터넷 이메일로, 혹은 SMS로 결과를 정부에서 지정한 날짜에 가족들에게 보냈다고 모범적인 사례로 지방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다른 학교 는 아직 시험도 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빛 학교 어린이들은 현재 39명 이구요, 올해 새로 입학 예정자는 70여명을 기도로 맞이 하려고 합니다.

<현지 신문의 실린 기사>

저는 가방을 싸 놓고 네팔에서 막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모든 것이 안정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핫띠슈레 마을에서 이곳 한국에 나와 있는 200 여명의 청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취업자들보다 네팔 청년 자살율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 출신들은 아직까지 불상사가 없지만, 인카운터 나 티디 등의 모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학하는 70여명의 학생을 기대하며>